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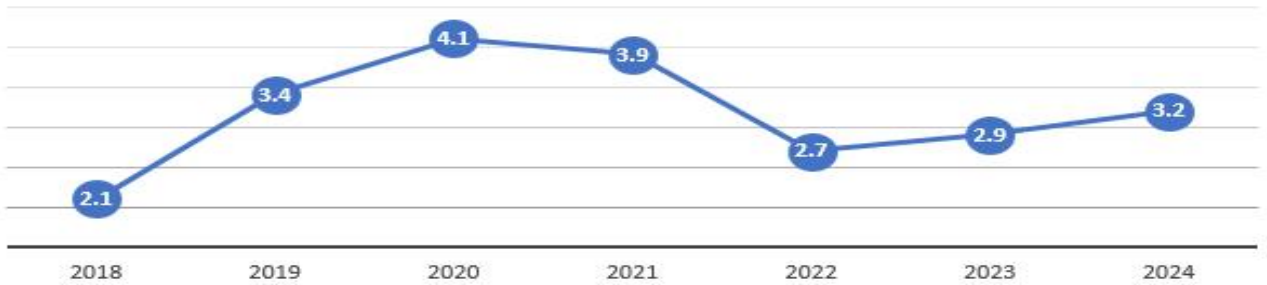
보도시점 2025. 1. 31(금) 06:00 < 1. 31.(금) 석간 > 배포 2025. 1. 30.(목)

사업용 태양광 신규보급, 연간 3GW대 재진입

- 2024년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3.16GW, 누적 보급 27.1GW(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하였으며,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용 태양광 신규보급 추이 (단위:GW)>



* 출처: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성되었다. 특히 '공장부지(지목)'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4년 '공장부지(지목)'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글로벌 모듈가격($/kW): ('23) 157 → ('24) 74, REC가격(원/kWh): ('22) 57 → ('23) 73 → ('24) 64

지역 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하여 두드러진 보급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5370)
		담당자	사무관	고승우 (044-203-53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